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2016. 4. 29(금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권수진, 사무관 김양욱 (Tel. 044-200-2328)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과 과장 남찬우, 사무관 강은영 (Tel. 044-203-3142)
* 엠바고 : 4.29(금) 11시(회의종료)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			

강릉빙상장 2개소, 철거 대신 올림픽 유산으로 존치·활용 한다

- 총리 주재 평창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, 경기장 사후활용·대회 준비상황 등 논의
- 신설 경기장 공사 정상 진행 중, 선수 경기력 향상 위해 충분한 적응 훈련 지원
- 홍보 체험관 조성, 성화봉송 아이디어 공모 등 참여와 체험 통한 올림픽 붐 조성 확산 유도

□ 정부는 4월 29일(금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*를 열어, 「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변경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고, 경기장 사후활용과 전반적인 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
* (참석) 국무총리(위원장), 정부위원 등 10명(문체부·통일부·행자부 장관, 국조실장, 미래부·국방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환경부 차관,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), 강원도지사, 대회조직위위원장, 대한체육회장, 대한장애인체육회장

○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는 총리 주재 위원회로,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(「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)한다.

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변경계획

□ 이 날 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전 세계에 방송중계할 국제방송센터(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) 건립사업의 주체와 규모,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.

* (사업주체) 조직위원회, (사업기간) '14.12~'17.4월, (규모) 연면적 51,024㎡, 지상 1~4층, (총사업비, 민자) 945억원

- 그리고 **평창선수촌**은 사업주체와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**사업비를 변경**하고, **강릉선수촌**과 **미디어촌**은 선수, 임원 및 미디어의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**사업규모 등을 변경**하였다.
 - * ▲ 평창선수촌 변경(안) : (사업주체) 용평리조트, (규모) 600세대, (총사업비, 민자) 1,800억원
 - ▲ 강릉선수촌 변경(안) : (규모) 922세대, (총사업비, 민자) 2,146억원
 - ▲ 강릉미디어촌 변경(안) : (규모) 2,561세대, (총사업비, 민자) 3,822억원

대회 준비상황

- 강원도와 조직위는 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통해 연내 완공 예정인 6개 신설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이 65% 수준으로 **대회 관련시설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**되고 있으며,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선수의 경기장 사전적응 훈련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.
- 아울러 선수촌·미디어촌의 차질 없는 조성,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 계획('16.6월)과 대회기간 사고, 폭설 등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 ('17.3월) 등 숙박, 수송·교통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·실행하여 선수·경기 및 이용자 중심의 대회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.
- 또, 국제방송센터 건설('15.12~'17.4월) 등을 통해 **최적의 미디어 제작 환경**을 구축하고, 올림픽 병원 지정(2개소), 개최도시 식당 서비스 선진화 추진('15.11월~) 및 로컬푸드 활성화('16.10월) 등을 통해 **글로벌 수준의 의료 및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한다**.
- 이와 함께 우리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된 **독창적 개폐회식*** 및 **은 국민과 세계인의 참여로 '하나된 열정'**을 보여주는 **성화봉송**** 추진 등을 통해 **고품격 문화올림픽**을 실현하는 한편,
 - * 개폐회식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최종 연출안 확정('16.12월)
 - ** 성화봉 디자인 선정('16.5월), 성화봉송로·성화룩 발표('17.2월)
- **5세대(5G) 이동통신**과 **사물인터넷(IoT), 4k UHD** 등 첨단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**최고의 I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**이다.

- 그리고 온실가스 발생량(156만톤) 전량 감축(28.5%)·상쇄(71.5%) 추진, 전기차 시범운행 및 공공 급속 충전소(5개소) 설치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올림픽 구현을 추진한다.
- 또한, 경기운영 전문인력 모집(~'16.12월) 및 종목별 워크숍 등 경기 운영 능력 배양, 우수한 자원봉사자 공개 모집('16.6~9월)·선발 등을 통해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
 - 특히, 한·중·일이 연달아 올림픽을 개최하는 계기를 활용, G-500일('16.9월) 계기 3개국 스타 출연 콘서트 등 한중일 연계 붐 조성을 추진하고,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·비영리 단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.

경기장 사후활용 방안

- 문체부와 강원도는 철거예정이던 강릉하키센터와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2개 신설경기장을 올림픽 유산가치, 동계스포츠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존치·활용하고,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* 강릉하키센터, 강릉스피드스케이팅(문체부-강원도-조직위 간 철거 합의, '14.6월)
- 다만, 올림픽 이후 국가나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비 절감, 다양한 수요창출 등 구체적인 사후활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였다.
- 한편, 지난 3월 문체부와 강원도, 강릉시,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대명그룹과 '강릉하키센터'의 사후 관리 및 운영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, 대명그룹에서 관리위탁 기간 동안 경기장 시설을 사용하고, 빙상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.
- 또, 관리운영주체가 이미 확정된 3개 신설경기장* 뿐만 아니라 기존 4개 경기장**에 대해서도 강원도에서 구체적 운영계획을 조기 마련할 계획이다.
 - * 여자하키센터, 아이스아레나, 슬라이딩센터 / ** 알펜시아 3개, 강릉컬링센터

참고 1

대회지원위원회 개요

□ 설치 근거 : 「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

-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

□ 구성 :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 (現 21명)

- (위원장, 1명) 국무총리
- (부위원장, 3명) 기재부·교육부·문체부 장관
- (당연직 위원, 17명) 미래부·외교부·통일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자부·농축산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국토부·국민안전처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강원도지사, 대한체육회 회장,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, 조직위원장

* 간사 : 문체부 체육협력관

□ 기능

- 대회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계획 승인,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산림보호·보전·복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, 대회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심의

□ 그간 운영실적 : 총 7회

참고 2

IBC(국제방송센터) 및 선수촌·미디어촌 개요

□ IBC (국제방송센터)

- 사업목적 :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방송 중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
- 위 치 :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 리조트 내
- 사업기간 : '14.12월 ~ '17.4월
- 사업규모 : 부지면적 122,410m², 연면적 51,024m²(지상1~4층)
- 사업주체 :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
- 총사업비 : 945억원

□ 선수촌·미디어촌 (사업계획변경)

- 사업목적 : 대회관련시설의 완벽한 설치로 대회 성공개최 도모
- 사업규모 : 5개 단지 4,083세대(올림픽선수촌 1,522, 강릉미디어촌 2,561)
- 총사업비 : 7,768억원(민자)

구 분		변 경(안)	
평창 마운틴 클러스터	평창 올림픽 선수촌	위 치	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142-50일원
		사업주체	(주)용평리조트
		부지면적	41,970m ²
		규 모	600세대 / 3,500명
강릉 코스탈 클러스터	강릉 올림픽 선수촌	위 치	강릉시 유천택지 내
		규 모	922세대 / 최대 3,984명
		사업주체	LH
		부지면적	57,111m ²
	강릉 미디어촌	위 치	강릉시 유천택지 내
		규 모	2,561세대 / 6,021실(6,560명)
		사업주체	LH
		부지면적	116,007m ²